

##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이름	김동*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마닐라
파견대학	라살아라네타대학	기간	2016. 12. 24(토) ~ 2017. 1. 21(토)

###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라살아라네타대학은 필리핀 말라본 빅토네타 에비뉴에 위치해있으며 마닐라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다. 규모는 생각보다 작은 규모이며 시설은 오래된 시설이지만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없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냥 재미있게 지내는 분위기고 한국 대학과 별반 다를거 없다
수업	수업은 토익수업은 아니고 멀티미디어 수업, 토익스피킹 수업, 1:1 수업(쓰기, 스피킹) 수업으로 나누어 진다. 토익 공부를 하기 위한 수업이기 보다는 토익스피킹 위주의 수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1:1 수업은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업의 질이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과제는 일주일에 두 번정도 에세이를 써야하고 단어 시험, 스피킹, 리스닝 시험으로 일주일 마무리 하는 시험을 본다. 과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하지 않으면 많다고 느낄 수도 있다.
Activity	2박3일 민도르섬, 필리핀 투어, 팍상한 폭포, 따가이다이 이렇게 4가지의 액티비티가 있지만 민도르와 필리핀 투어를 했었다. 2곳은 정말 추천할 정도로 좋았고 민도르섬에서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가 있어서 정말 좋았다. 추가 비용은 가서 먹을 음식만 더 추가되었다.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12월 말부터 1월 초 까지는 28~30도 정도이며 습하지는 않아 우리나라 여름 날씨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1월 중순 이후가 되면 저녁에는 약간 쌀쌀했으며 기숙사, 어학당에서 항상 에어컨을 켜기 때문에 긴팔 하나씩 챙겨서 수업을 가곤 했습니다.
안전	처음에 생각한것 보다 훨씬 안전하며 그랩, 우버 택시를 이용하면 비용과 정확한 길 안내도 나와있어 손쉽게 여행도 할 수 있고 학교 근처가 시골이긴 하지만 수년간 많은 한국인이 다녀와서 그런지 나쁜짓만 안한다면

	안전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0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 기타( ) 새로 지어진 기숙사에서 지냈는데 시설은 만족하며 분위기 또한 시끄럽지는 않았다. 통금은 10시까지여서 아쉬운 점은 많았으나 충분한 것 같기도 하다. 남학생들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항상 꼭대기 층 까지 걸어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식사	학교식당( o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 기타( ) 학교식당 밥은 정말 맛있었으며 하루에 3끼 다 챙겨먹었다. 순천향대학교에서 4천원주고 사먹는 밥보다 더 맛있었고 한식이 별로 생각이 아닐 정도로 맛있고 메뉴가 다양하게 나와서 정말 좋았다. 4주간 버틸수 있었던 힘은 맛있는 한식이었다.
교통	학교 바로 옆에 기숙사가 있어서 통학은 엄청 편리하며 주변을 여행하기 위해서 학교가 시골에 있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1시간정도 이동해야 한다. 하지만 택시요금이 저렴해서 여행다니기 좋으며 어느정도 적응이 되면 지프나 트라이시클을 타면서 이동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타는지 알면 편리하고 재미있는 경험이 된다. 하지만 저녁 시간때는 정말 차가 많이 막혀서 통금 시간 전에 미리 출발해야한다.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기숙사보증금	699,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여행	250,000	
기념품	25,000	
식사, 술	100,000	
간식	25,000	
합계	400,000	

#### 5. 출국 전 준비사항

<p>필리핀 항공은 수하물 20kg 으로 초과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하며 직불카드는 꼭 가져가야 한다. 파견기간이 1달인데 1달을 해서 영어 실력이 엄청 향상 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느낄 수 있는 기간이었던 것 같다. 너무 많은 기대는 너무 많은 실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p> <p>프로그램 비용 이외에 쓰는 비용은 자신이 어떻게 생활 하는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것 같다. 카드를 쓰는 것보다 달러를 충분히 챙겨가는 것이 좋은 것 같고 직불카드를 이</p>
--------------------------------------------------------------------------------------------------------------------------------------------------------------------------------------------------------------------------------------------------------------------------------------------------------------

용한느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기숙사 밥을 꾸준히 먹으면서 주말에 절약을 한다면 큰 돈이 들지 않아도 재밌고 즐겁게 잘 다녀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다. 그리고 생각보다 필리핀이 위험하지는 않지만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저는 주말에는 무조건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여행에 사용한 돈도 많지만 4주간 다녔던 여행 경험은 정말 좋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왜 영어를 알아야 하는지, 공부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고 필리핀 문화를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 수업이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면 스피킹이 정말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될 텐데 1:1 수업을 하면서 스피킹이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하는지 전체적인 윤각이 보였으며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1:1 선생님과 친해져서 하루에 1시간씩 무조건 프리토킹을 하였으며 프로그램이 끝난 지금도 카카오톡을 통해서 아직도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본인이 어떤 자세로 수업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남은 한 달 방학동안 토익공부를 확실하게 한 이후에 스피킹과 리스닝에 좀 더 중점을 두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교환학생을 준비하여 이번년도에 지원해 볼 예정이며 4주 동안 느꼈던 이 느낌을 잊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인생을 즐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처음에 입학할 때 학교 대표로 나가서 영어 스피치를 하였다.</p>	<p>근처에 있는 시장에서 망고를 사와서 저녁마다 먹었다. 엄청 저렴하다</p>



라살 대학 댄스 동아리 친구들과 공연을  
구경한 후 사진을 찍었다.



학교 근처 맥주집을 갔는데 우연히  
선생님들을 만나서 같이 사진을 찍었다.



마닐라 동물원에 가서 뱀과 사진을  
찍었다.



1:1 선생님과 그 제자들 정말 좋은 추억이  
었다.